
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한
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
대출 확대계획

2021. 5.

금 융 위 원 회

금 융 감 독 원

I. 검토배경	1
II.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현황 및 평가	3
1. 현 황	3
2. 평 가	4
III.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	6
1. 은행별 대출확대 및 CSS 고도화 계획	6
2. 관리·감독 강화 방안	10
IV. 향후 계획	11

I. 검토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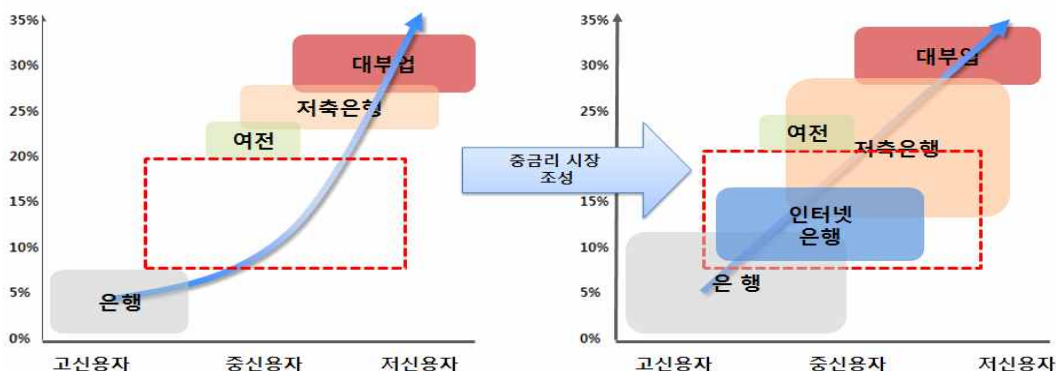
◇ 인터넷전문은행은 디지털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

-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,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입
 - * 도입방안 발표('15.6) → 2개사 인가/영업개시(케이: '16.12/'17.4, 카카오: '17.4/'17.7)
→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('18.10) → 토스뱅크 예비인가('19.12)
-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회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◇ 혁신적 방식으로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- 중금리 대출은 ①금융회사의 적극적 공급 유인 부족, ②수요자 선별의 어려움(정보비대칭) 등으로 시장 형성이 어려운 문제 지속
 - 기존 은행들은 건전성 악화 우려, 평판 리스크 등으로 중·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소극적이었음
-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*를 추진하면서,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중금리 대출 공급기반 확대 기대
 - * 「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('16.1월 발표)」 등
- 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은 중금리 대출 시장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➡ **중금리 대출 공급기반 확대**

<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따른 변화 모습('16.1월 발표자료) >



② 빅데이터 등 혁신적 방식을 활용하여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➡ **정보비대칭 문제 해소**

- 금융 데이터(금융거래실적, CB사 정보 등)뿐만 아니라, 비금융 거래 정보,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
- 상환능력 평가가 부정확한 상태에서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경우, 연체율 상승, 은행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문제를 극복

◇ **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결과,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달**

□ 그러나, 지난 4년간 카카오·케이뱅크 영업 결과,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,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달 ➡ **“절반의 성공”에 그침**

○ 중금리대출 공급규모(4년간 총 2.5조원)를 확대하였으나,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*하는데 집중

*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('20년 1.4조원) 중 91.5%가 사잇돌대출(1.3조원)
사잇돌대출 공급액(1.3조원) 중 66.4%를 1~3등급에 공급

○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,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*

* 신용대출 중 중·저신용층 비중: 인터넷전문은행 12.1% < 은행평균 24.2%

○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

□ 카카오·케이뱅크가 출범 4년이 경과하였고, 토스뱅크 본인가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,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

⇒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

○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저신용자(약 2,200만명) 대상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

Ⅱ.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현황 및 평가

1. 현 황

-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규모는 '20년말 23.3조원 수준으로 '17년 출범 이후 급속도로 확대 ('17년말 5.5조원 대비 약 4배 성장)

- 카카오뱅크가 쉽고 편한 UI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한 반면,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지연 등으로 영업에 한계

<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잔액 증가 추이 >

(조원)

구 분	'17말	'18말	'19말	'20말
카카오	4.6	9.1	14.9	20.3
케 이	0.9	1.3	1.4	3.0
합 계	5.5	10.4	16.3	23.3

- 중금리대출*의 경우, '17년 출범 이후 4년간 총 2.5조원 공급

* 사잇돌대출(SGI 보증부) + 민간중금리(4등급 이하 70%인 자체 신용대출)

- 출범 초기인 '17년~'18년 공급액은 미미하였으나, '19년 1조원, '20년 1.4조원으로 크게 증가*

* '19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연간 은행권 공급액(19개 은행)의 70% 이상을 공급

<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공급액 >

(억원)

구 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누계
은 행(B)	3,370	7,942	8,922	14,897	18,004	53,135
인터넷전문은행(A)	-	1,371	-	10,440	13,516	25,327
카카오	-	-	-	9,768	13,516	23,283
케 이	-	1,371	-	672	-	2,043
비중(A/B)	-	17.3%	-	70.1%	75.1%	-

-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확대는 카카오뱅크가 '19년부터 사잇돌대출 공급*에 집중한 것에 기인

* 카카오뱅크의 사잇돌대출 : ('19년) 9,141억원 → ('20년) 1조 2,366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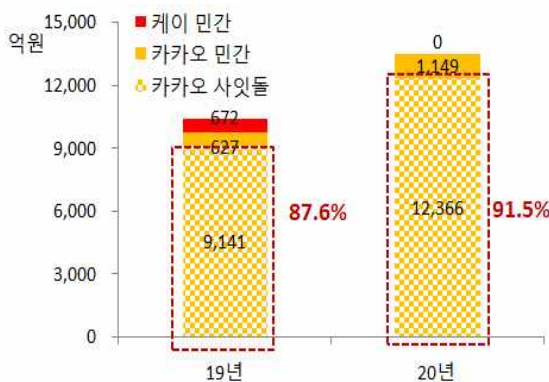
- 케이뱅크는 출범초기 자체 중금리상품 출시 등 중저신용자 대출에 노력하였으나, 자본확충 지연 등으로 '18년 이후 실적 미미

2. 평 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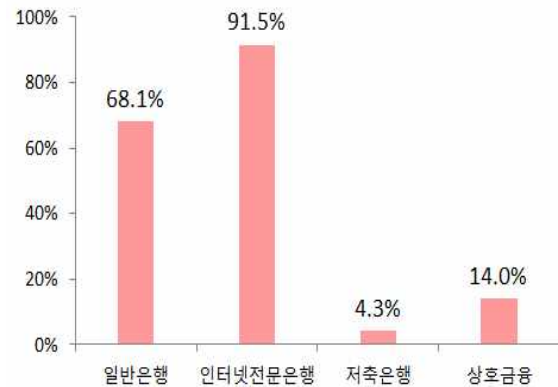
① 인터넷전문은행은 보증부 사잇돌대출('20년 91.5%)에 집중하고, 자체상품인 민간중금리대출(8.5%) 공급에는 소극적

-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은 미미
 - 반면, 민간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
-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 타 업권에 비해서도 사잇돌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

<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구성 >



< 사잇돌대출 비중('20년 공급액 기준) >



② 사잇돌대출을 1~3등급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

- 사잇돌대출은 차주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나* 중금리대출의 일환으로 도입된 만큼 중·저신용자에 주로 공급됨이 바람직
 - * 사잇돌대출이 주로 고신용자에게 공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(신용점수 하위 30% 차주에게 70%이상 공급) 신설 예정('21.下)
- 그러나, 인터넷전문은행이 공급한 사잇돌대출의 66.4%가 1~3 등급 고신용자에 집중되었으며, 이는 전체 평균(56.0%)을 상회

< 사잇돌대출 중 고신용자(KCB 기준 1~3등급) 비중 >

('20년 기준)

구 분	인터넷은행 (A)			사잇돌 전체 (B)	A-B
	카카오뱅크	케이뱅크	공급실적 없음		
고신용자 비중	66.4%	66.4%	공급실적 없음	56.0%	10.4%p

③ 전체 신용대출 기준으로도 고신용자(1~3등급) 중심으로 공급하여, 기존은행보다도 중·저신용자 비중이 낮은 문제

- 중금리대출 뿐 아니라 전체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자 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
- 은행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24.2%인데 비해, 인터넷전문은행은 12.1%로 은행평균보다도 낮음
- 특히, 카카오뱅크는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0.2%에 불과

< 중·저신용자(KCB 기준 4~10등급) 대출 비중 >

(‘20말 기준)

	인터넷은행 (A)	카카오뱅크	케이뱅크	은행 전체 (수은 제외) (B)	A-B
전체 가계대출	15.6%	14.9%	20.4%	24.2%	△8.6%p
- 신용대출	12.1%	10.2%	21.4%	24.2%	△12.1%p

④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(CSS)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

- 인가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안정보를 축적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CSS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
- 그러나, 주주사·통신사 등과의 협력 부진, 데이터 처리·검증 문제 등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CSS 구축이 지연
- 주주사·통신사 정보 등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,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설립 전 개발된 CSS를 아직도 사용중

구분	카카오뱅크	케이뱅크
사업 계획	• 금융정보뿐 아니라 주주사(카카오, 이베이)와 통신사 데이터, 대안정보 등을 축적하여 '19년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 개발	•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(통신, 유통)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 개발
현재 상황	• 카카오톡 선물하기, 카카오택시 이용고객 정보 등 제한적 정보만 활용중 • 설립 전 CB사가 제공한 일반 국민 데이터를 전제로 개발한 CSS를 아직 사용 중(실제 카카오뱅크 고객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)	• KT 통신 이용고객 정보(통신료 수납·로밍실적) 등 제한적 정보만 활용중 • 설립 이후 실제 케이뱅크의 고객 정보를 반영한 CSS를 재개발·적용 중('20.7월~)

Ⅲ. 인터넷전문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

< 기 본 방 향 >

① **(대출 확대)**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 방식으로 중·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확대계획 수립

⇒ '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'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

① 카카오·케이뱅크 및 토스뱅크(본인가 심사 중)의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⇨ '23년말 30% 상회 목표

$$\text{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(\%)} = \frac{\text{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}^*}{\text{가계 신용대출}} \times 100$$

* 신용등급 4등급 이하(신용평점 하위 50%(KCB 820점 이하)) 차주에 대한 대출

②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,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 확대

② **(CSS 고도화)** 인터넷전문은행이 중·저신용자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CSS 고도화* 병행 추진

*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, 중·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

○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

③ **(관리·감독 강화)** 계획 이행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-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고, 정부가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
- 미이행 시 신사업 인·허가 등에 고려
-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
- 인터넷전문은행 IPO 시 투자자에게 명확히 공시

1. 은행별 대출확대 및 CSS 고도화 계획

1

카카오뱅크

□ **(현 황)** '20년말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10.2%로
인가신청시 사업계획(30.8%) 및 은행 평균(24.2%)을 큰 폭 하회

○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의 13.3배를 기록한
반면,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는 4.4배에 그침

○ 이는 카카오뱅크가 사업계획을 상회하여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
사업계획과 다르게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*한 것에 기인

* ① 사업계획과 달리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영

- 중·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의 대출완료율(대출완료율 = 대출승인률×대출
실행률)을 15~20%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5.7%(카카오뱅크 추정)에 불과

② 중·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CSS 구축도 지연

□ **(계 획)** '20년말 10.2%에 불과한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
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'23년말 30%로 확대

○ ①CSS 신규 개발, ②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을 병행 추진

① 카카오뱅크의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·금융
이력부족자(Thin-filer)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
(현재 모형 개발 중, '21.6월 적용 예정)

② 통신정보, 결제정보, 공공정보 등* 대안정보 활용범위 확대

* 예시: 결제정보(휴대폰소액결제, 카카오페이 등), 공공정보(건강보험료 납부,
연말정산 등)

< 카카오뱅크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계획 >

(억원)

구 분	사업계획 ('20말)	'20말	'21말	'22말	'23말
가계신용대출(A)	10,575	140,376	153,761*	-	-
중저신용자신용대출(B)	3,255	14,380	31,982*	-	-
비중(B/A)	30.8%	10.2%	20.8%	25%	30%

* '21년말 가계신용대출, 중저신용자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, 시장
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□ **(현황)** '20년말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21.4%로
인가신청시 사업계획(52.6%) 및 은행 평균(24.2%)을 모두 하회

-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의 4.3배를 기록한 반면,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는 1.8배에 불과
- 설립초기 취급한 중·저신용자 대출의 높은 연체율, 자본부족에 따른 대출영업 중단 등으로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한계

* ① 영업개시 시점부터 공급한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높은 연체율
(('17)8.0% → ('19)15.0%)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방향을 보수적으로 전환

② 영업개시 직후부터 자본확충 전까지('17.7~'20.6) 수차례 대출영업 중단

□ **(계획)** 신규 CSS('20.7월 도입)가 안정화되는 '22년부터 중·저
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'23년말 32%로 확대

- 실제 고객 정보를 반영한 CSS의 변별력, 예측력 등을 검증하며
점차 ①중·저신용자 대출기준 완화, ②대안정보 활용 확대 추진

① 중·저신용자 승인최소기준(Cut-off) 완화(예: 6등급 → 9등급) ('21.6월)

②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
대안정보*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('21.4분기)

* 예시: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(BC, 다날), 통신정보(이용행태정보, KT)

< 케이뱅크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계획 >

(억원)

	사업계획 (('19말*))	'20말	'21말	'22말	'23말
가계신용대출(A)	6,417	27,289	56,151**	-	-
중저신용자신용대출(B)	3,376	5,852	12,084**	-	-
비중(B/A)	52.6%	21.4%	21.5%	25%	32%

*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상 '20말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'19말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

** '21년말 가계신용대출, 중저신용자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, 시장
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※ 케이뱅크는 '21년중 추가 자본확충을 완료하여 신용대출(중·저신용자
대상 포함) 규모를 '20말 대비 약 2배 확대한다는 계획

- **(확대 계획)**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% 이상으로 설정하고 40%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
- **(CSS 구축)**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출범시부터 중·저신용자 등의 상환능력 평가에 적합한 CSS 구축 추진
- ① 중·저신용자 고객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고객정보, 햇살론 등 중·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하여 CSS 구축
- ② 금융이력부족자, 자영업자, 급여소득자 모형을 각각 개발하여 그룹내 평가, 각 그룹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 적용

< 그룹 모형별 주요 평가항목 (예시) >

모형	금융이력부족자	자영업자	급여 소득자
주요 평가항목	휴대폰번호변경이력, 최초 신용카드개설일 등	자산, 기업신용공여 정보 등	대출금액,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등

- ③ 평가항목 중 부정적 금융정보 비중 축소, 대안정보 비중 확대
- 부정적 금융 신용정보(연체, 고금리 대출 이력 등)의 평가 비중 축소
 - 금융이력 외의 대안정보를 신용 평가에 적극 반영

*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, 중·저신용자 고객 중 약 30%의 신용등급이 CB사 신용등급 대비 높게 산출되는 효과 발생 (토스뱅크 추정)

< 토스뱅크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계획 >

(억원)

구 분	'21말	'22말	'23말
가계신용대출(A)	4,693*	-	-
중저신용자신용대출(B)	1,636*	-	-
비중(B/A)	34.9%**	42%**	44%**

* '21년말 가계신용대출, 중저신용자신용대출 규모는 영업개시 시점,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**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, 본인가 여부, 본인가의 내용, 영업개시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2. 관리·감독 강화 방안

① 은행은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*

- * '21.2/4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경 최초 공시 예정

② 정부는 이행현황을 점검*(분기별)하고 점검 결과 공개(연 1회), 필요시 개선 권고

- *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CSS 고도화 계획 이행 여부
 - '23년말까지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%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%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

③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·허가 등에 고려

-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·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*로 감안

- * 사업계획의 신뢰성,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

④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·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 계획을 면밀하게 심사

⑤ 인터넷전문은행 IPO 시 상장 관련 서류, 증권신고서에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기재·공시(한국거래소)

- * 거래소는 공익 실현,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 요구 가능

IV. 향후 계획

□ 5.26일 금융위원회 보고 후 발표

※ 5.13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산업·혁신분과에서 사전 논의를 거침

① CSS 개선이 중요

- “기존 은행권의 중·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 역량이 낮아 관련 대출의 손실률이 높은 것이 은행권 중금리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할 때 CSS 개선이 선행될 필요”
- “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만큼 CSS 고도화를 본격 추진해야 할 때”
- “정부도 업계의 데이터 가명결합 활성화 등을 지원할 필요”

②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필요

- “인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당국과의 약속이므로 성실한 이행 필요”

③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배려 필요

- “금번 관리·감독 강화 방안이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”

□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시 중저신용자 공급액은 일부 예외 적용 검토

□ '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'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